
 금융위원회		<b>보 도 참 고 자 료</b>			
<b>보도</b>		<b>배포 후 즉시</b>		<b>배포</b>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은행과장 박 민 우(02-2100-2950)		<b>담 당 자</b>	윤 현 철 사무관 (02-2100-2951)	
	금융위 이행지원팀장 전 수 한(02-2100-1660)			김 수 아 사무관 (02-2100-1662)	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(02-3145-8020)			황 준 하 팀 장 (02-3145-8030)	
	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장 김 준 환(02-3145-5700)			박 동 원 부국장 (02-3145-5688)	

**제 목 : 코로나19 금융지원 관련 국민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(JTBC 4.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**

## 1. 기사내용

- ☐ JTBC는 4.23일자 「긴급대출 신청했는데…일부 은행 “카드부터 만들어라”」 제하 기사에서
-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긴급대출 신청할 때, 일부은행 창구에서 카드 신규발급 및 금융상품 가입 등을 요구(소위 ‘껍기’)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

- ☐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·적금 등 은행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\*한 행위로서,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.

\* 은행법 제52조의2제1항,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제1호

- 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의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고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·건의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,

- 영업점 방문\*, 컨퍼런스 콜\*\*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.

\* 4.1~3일 금융위.금감원 공동으로 107개 금융회사 영업점 현장방문 실시하였으며, 금감원 현장지원반을 지속 운영중([1차] 4.7~14일, 7개반 / [2차] 4.16~24일, 5개반)

\*\* 금융상황 점검회의(매주,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), 은행권 실무협의체(매주,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주재), 은행권 간담회(4.10~14일, 금감원 부원장 주재) 등

- 코로나19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애로·건의사항 및 부당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,

① 금감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(☎1332▶6번)로 연락주시거나,

② e-금융민원센터([www.fcsc.kr](http://www.fcsc.kr))에 신청하여 주시면

-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실무담당자가 관련 사항을 파악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금융위원회 대 변 인 <a href="mailto:prfsc@korea.kr">prfsc@korea.kr</a>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
--	---	--	---	---	--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